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9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섬해양정책과	담당자	김영선 ☎440-4846 최옥연 ☎440-484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오전 9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만에 914명 태운 크루즈선 인천 입항
 - 19일, 하팍로이드사의 유로파2호 인천항 입항 -
 - 환영 행사 후 신포시장, 월미도 등 인천 관광지 둘러봐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천항 크루즈 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독일 크루즈선인 하팍로이드(Hapag-Lloyd)사의 유로파2(EUROPA2, 4만3천톤급)호가 승객 544명과 승무원 370여명 등 총 914여명을 태우고 3월 19일 오전 인천 내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지난 10일 홍콩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가사키, 부산을 거쳐 인천항으로 입항했으며, 이후 인천을 떠나 일본 오사카, 시미즈, 도쿄로 향한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관광공사 등은 코로나19 이후 첫 입항을 기념하며, 승객들이 하선한 오전 7시 30분부터 인천 내항 1부두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환영행사로는 국악양상블 공연, 전통의상 체험,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등이 마련됐다.

시와 항만공사, 관광공사는 인천항 크루즈선 입항을 기념해 첫 승객과 선박 선장 등 선사 관계자에게 기념패와 꽃목걸이, 기념품을 증정하고 환영했다.

기념행사 후 승객들은 신포시장, 월미도 등 인천 지역 관광지를 둘러본 후 저녁 8시에 출항한다.

유정복 시장은 “3년 만에 크루즈가 인천항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 며, “인천은 세계 최대 규모(22만 5천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 전용 터미널과 동북아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최대 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플라이 앤 크루즈(Fly&Cruise)에 최적의 맞춤형 도시” 라고 강조했다. 이어 “크루즈 관광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항에는 이날 유로파2호를 포함해 총 12회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다. 내달 7일에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재개장과 함께 튜이 크루즈(TUI CRUISE)사의 9만8천톤급 선박인 마인 쉬프 5(MEIN SCHIFF 5)호가 약 2천8천명의 여객을 태우고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